

지 상 법 석

그대로 업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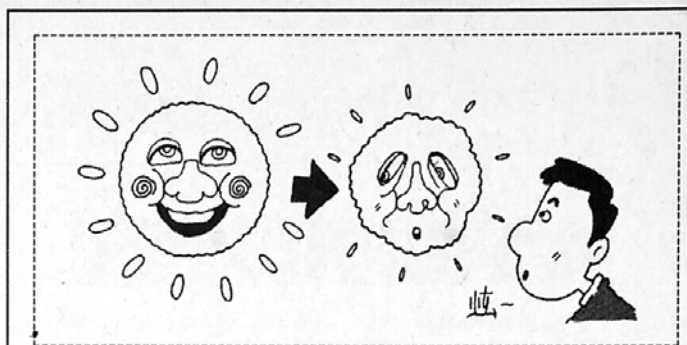
온갖 그림자가 오고가고 하는 것을 남은 모르지만 스스로는 자기 마음속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허공에는 구름이 끼었다가 개이기도 하고,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마음 속에 번뇌망상이 오고 갔다가 무의식상태가 되기도 하며, 다시 의식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마음속의 내용이나 모양이 자주 달라지고 바뀐다 해서 마음이 오고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보면 생시와 똑같은 모양이 오고 가고, 불건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음식도 먹고, 내뿜어 오고가는 것도 그대로 나타나서 모든 감각이 생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시에 무서워하는 것들은 꿈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꿈을 깨고 보면 아무것도 오고 간 것이 없습니다. 꿈에 남게 당했다더라도 놀래서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꿈에선 사실대로

있는 것입니다. 허공 속에 구름이 많으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지 허공 자체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란 것은 그 양을 도저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마음이라고 우리가 한계를 임의대로 나누어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한다면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큰 것이라 해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치면 또 마음보다 작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사가 와서 잡아다

자기 자신을 괴롭힌 것입니다. 좋게 느끼거나 나쁘게 느끼거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자기 앞을 가리느냐에 따라 좋아지고 나빠지고 괴로워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혀 끄달리고 괴롭다 괴롭다 하는지 처량하기만 합니다. 어느날 산에 있는 원숭이가 가만히 산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떤 연못에 둥그란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 물에 비친 달은 진짜 달이 아니라 그림자인데도 환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생각했

달인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인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의 생각은 연못의 달처럼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지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그림자의 페이드가 시작됩니다. 다시 눈을 뜨고 보이는 대로 그에 맞춰 생각이 떠오릅니다. 잠자다 나타나는 생각은 꿈이요, 이 꿈은 생시와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믿지 못하는 것은 보통 인간의 마음입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이글러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습성은 바로 우리의 업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나쁜 업성, 업도 차차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마음의 모든 번뇌망상,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구의 삼업 중 어느쪽으로 찾아왔나 하는것. 말도 항상 선한 마음으로 하는 생활에 젖은 사람은 누구를 대하더라도 항상 공손하고, 남에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것은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항상 남을



별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지고 있는 수소의 양은 유한한 것이므로 언젠가는 핵융합 반응의 원료가 되는 수소를 다 쓰게 될 것이다. 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를 거의 다 사용하게 되면 매우 불안정해 지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이 때 대부분의 별들은 적색거성(赤色巨星)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이 단계의 별은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과 외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심부에서의 수소 원료는 고갈된 상태이고, 외피는 원래 크기의 100배 정도까지 팽창된다. 이 단계에서 강한 대류작용에 의해 별의 일부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완료되면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사라지면서 외부에 있던 질량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별 자체의 중력에 의해 별 전체가 중심부로 함몰하여 높은 밀도의 백색왜성(白色矮星)이 된다. 대부분

민안에 별의 질량이 대단히 커서 중력에 의한 수축 압력이 너무 커서 중심부의 형태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심핵 주위의 중력은 너무도 커서 빛조차도 이 중력을 이겨내면서 이 별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블랙홀이라고 한다. 이 블랙홀에서는 빛이 새어나오지 않으므로 오직 간접적인 관측만이 가능하게 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대개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죽는 모습은 서로 상당히 다르듯이, 별도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나 그 결과는 이처럼 서로 상당히 다르다. 이제 복잡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여 보자. 어제 쨍한 태양은 오늘도 우리의 세계를 비추고 있지만, 어제의 태양은 오늘의 태양과는 다르다. 태양은 분명히 조금씩 변화하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듯이 태양도 50억

년 후의 어느 날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풀잎이 썩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다음 풀잎의 어느 파스한 불날 새 싹이 솟아나듯이, 이 우주 어디에선가는 새로운 태양이 바로 그 순간 생기고 있을 것이다. 부증불감이다. 중도의 입장에서 볼 때 생멸은 오직 원융하여 무에할 뿐이다. 성주괴공이라는 우주의 원리는 우주의 구성구석 어느 곳 하나에서도 어긋남이 없다.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보는 유기적 생명체만의 일이 아니다. 작게는 유기 생명체에서부터 크게는 삼천대천세계의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 전부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공으로 부터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우주의 원리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 일체는 다 우리와 같은 생명이다. 그들 일체의 하나하나 돌아가는 모습은 그 어느것 하나 예외없이 연기법을 들려주는 부처님의 음성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이 우주 전체는 바로 법음이 울리는 법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좋다’ ‘나쁘다’ 분별함은 스스로 구속하는 감옥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 도우며 항상 공손

느낍니다.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 파문이 한참 오래 갈듯 하지만 결국 없어지는 것처럼 흔적이 자기 마음에 남아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의 생각이나 느낌이 꿈으로 모양으로 나타난다 해서 마음자체가 오고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아무리 자기 속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마음이 같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있던 생각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는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난 일도 없습니다. 난 일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죽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송하다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생불멸, 부증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물건이 아니라서 아무리 닦는다해도 닦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물건이 아니라서 때가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더럽다 깨끗하다 커졌다 작아졌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일을 하던 아무도 본인자신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본모습을 가리다 보니 그것이 고통이 되고 여러 가지 감정, 느낌으로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자기속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과 번뇌망상은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내거나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소리가 되거나 빛이,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나타난 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인데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다 보니, 정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지배해서 나쁜 곳에 떨어뜨리거나 또 나를 좋은곳에 인도해 주거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똑같이 편안하게 해주고 똑같이 즐겁게 해주어야 왜 편안한 사람, 괴로운 사람의 구별이 있는가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을 해보자 혼자 불평이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하면서 구속받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구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구속했다는 것은 자신 속에 일어난 생

“인과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이익주면 줄수록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갑니다” 습니다. ‘저렇게 희귀한 달이 연못 속에 있구나!’ 달이란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인줄 알았던 원숭이는 연못속에서 환한 빛을 뿜고 있는 달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원숭이들은 달이 항상 동그랗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달은 하루하루 모양이 변하고, 또 때때로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원숭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달을 잡아둘 수 있을지를 고심하던 끝에 문득 연못에 있던 달을 보고는 그것을 담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나무에 몸을 붙이고 사슬을 엮어 연못 속의 달을 건지려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달은 건져지지 않았습니. 달은 그대로 물속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 했을까요.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남을 보면 한마디라도 좋게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것도 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된다 나쁘다 하는 것만 알더라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신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한 생각을 놓아 버리면, 좋은 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하다보면 나쁜 습성이 저절로 일어났듯이 좋은 습성도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모든 업의 인과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오래 살려면 남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근본마음을 돌이키고, 좋은 생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마음 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부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풀잎 썩은 자리에 다시 새싹 돋아나듯 우주전체는 연기법따라 질서있게 생멸”

의 별들은 핵융합 반응의 원료인 수소를 다 사용하고 백색왜성으로 최후의 단계를 찍은 별의 최후이다. 그러나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훨씬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수소 원료가 고갈되고 나면, 수소 원자에 의해 생성된 헬륨 원자핵이 다시 결합하여 탄소 원자핵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반응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 탄소 원자를 원료로 하여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내는 핵융합 반응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거쳐 연료가 다 소비되고 나면 자체중력에 의하여 극히 짧은 순간에 격렬하나 수축이 일어나다가 폭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별은 며칠간 대단히 밝은 빛을 내게 되고 별을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외부 공간으로 날아가고 만다. 이를 초신성 폭발이라 한다. 이 폭발의 잔해는 (1cc당 100만톤 정도 되는) 대단히 밀도가 높은 물체 덩어리가 되는데, 이는 반지름이 수십km정도 밖에 되지 않고 초당 수십회 정도 자전하는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별이 된다. 이는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중성자 별이라고 추측된다.

수련원 양도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山水가 완벽함. 대형버스가 마당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이 되어있고 수련원 및 노후복지시설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현재 신도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고시생을 위한 방 21개와 일반 수강객을 위한 최신 현대시설을 갖춘 17개의 방과 주지실 20평을 제외한 식당 및 일반복지를 위한 80평과 법당 130평의 건축물이 있음.

자세한 내력

- 부 지 : 1만평
- 건축물 : 법당 → 130평
식당칸 → 80평
요사 → 140평
방 → 50개

●참고 : 부동산 중개인 불필요
소요 당사자 연락바람

연락처 : 02) 233-2500

한가지 소원을 꼭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가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 드림
해운대 - 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승정해수욕장 → 용궁사 ☎(0523)361-3165